



형태소를 분리하여 보여주는 표를 보면 단어로 인정함을 알 수 있다. ③ '는', '를', '있', '다'는 주격조사, 목적격 조사,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종결어미로 문법적 기능을 하는데 <보기>를 보면 형태소로 분류되고 있다. ④ <보기>를 보면 '꽃사과', '먹었다'를 단어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꽃사과'는 '꽃'+ '사과'로 '먹었다'는 '먹-'+'-었-'+'-다'로 형태소 분석이 되고 있다. 따라서 단어 중에는 더 작은 단위의 형태소로 분석되기도 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먹'은 '먹다'의 어간으로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자립성이 없어 <보기>에서 단어로 인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나'의 경우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는 형태소이면서 자립성이 있으므로 단어로 본다. 즉,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형태소라도 모두 단어가 되는 것은 아니다.

**12. [출제의도] 음운의 변동 이해하기**

'부엌에[부어께]'는 '엷'의 'ㄱ'이 연음되어 발음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음운 변동의 용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냇[남]'은 'ㅅ'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적용을 받아 'ㄷ'으로 교체된 경우이고, '신라[실라]'는 'ㄴ'이 인접 음운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음운이 교체된 경우이다. ② '좋아[조:아]'는 'ㅎ'이 모음 어미 '-아' 앞에서 탈락한 경우이다. ③ '국화[구와]'는 'ㄱ'이 'ㅎ'과 합쳐서 'ㅋ'으로 바뀌는 음운 축약의 용례이다. ⑤ '눈요기'는 [눈뇨기]로 발음되므로 '담요'처럼 'ㄴ'이 첨가되는 용례로 볼 수 있다.

**13. [출제의도] 한글 맞춤법 이해하기**

'벌어지다'는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이고, ㉓의 '사라지다'는 앞말이 그 본뜻에서 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①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으면, 어간의 형태와 어미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으므로 어간이 표시하는 어휘적 의미와 어미가 표시하는 문법적 의미가 쉽게 파악될 수 있다. ② '남어'로 적는 것은 어간 '남-'과 어미 '-어'를 구별하여 적는 것이다. ④ '들어가다'로 적는 것은 앞말 '들-'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⑤ '것이오'로 적는 것은 '-오'가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이기 때문이다.

**14. [출제의도] 효과적인 답화 표현 이해하기**

㉞은 지환에 앞서 원세의 말에 나온 '제출할 작품'을 지칭하는 지시어이므로 ㉞은 지환이 이미 언급했던 것이 아니라 원세의 말을 받아서 사용한 것이다.

① ㉞은 지환에게는 멀리, 원세에게는 가까이 있는 무를 담요를 지칭하는 지시어이다. ② ㉞은 화자와 청자에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둘 다 보고 있는 대상을 지칭하는 '저'를 사용했는데, 이는 화자와 청자가 둘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③ ㉞은 원세의 '일기예보에서는 날이 풀린다고 하던데.'라는 문장을 받아 사용한 대용어이다. ④ ㉞은 대화의 화제를 날씨에서 제출할 작품으로 돌리기 위해 사용한 접속어이다.

**15. [출제의도] 올바른 문장 표현 이해하기**

<보기>는 필요한 문장성분이 생략되어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문장에 대한 설명이다. '내 친구 영수는 얼굴이 닳았다.'는 문장에 필요한 부사어가 빠져 있어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문장이므로 ㉞에 들어갈 예로 적절하다.

② '그는 하얀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는 '신고 있었다'의 의미가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문장이다. ③ '예고'라는 단어에 '미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불

필요한 요소가 포함된 문장이다. ④ '소중한'의 수식 범위가 모호하여 의미가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문장이다. ⑤ 부사어인 '절대로'가 서술어와 호응이 되지 않는 문장이다.

**[인 문]**

[16~19] <출전> 이상엽, 「니체의 역사」

**16. [출제의도] 글의 내용 전개 방식 이해하기**

이 글의 중심 화제는 삶과 역사의 관계이다. 삶이 역사와 관계를 맺는 유형을 '기념비적 역사', '골동품적 역사', '비관적 역사'로 제시하고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고 있다.

**17. [출제의도] 주요 개념 파악하기**

3문단에서 ㉠은 실증적 사실의 확인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① ㉠은 3문단에 언급된 비범한 대상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한다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은 3문단에 언급된 민족 구성원 모두를 결합시킨다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은 2문단에 언급된 과거의 위대함에 대한 회상을 통해 새로운 위대함의 가능성을 추진하고, ㉡은 4문단에 언급된 보존되고 전승된 과거와 투쟁을 벌여 새로운 관습과 본능을 창안한다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은 4문단에 언급된 과거를 부정하지만, ㉠은 과거를 숭상하고 ㉡은 과거를 보존한다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8.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가)는 비관적 역사, (나)는 기념비적 역사, (다)는 골동품적 역사의 사례다. 이 글에 따르면 비관적 역사에서 관건 받아야 할 과거의 기준은 절대적이고 선형적인 정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구에 따른 삶 자체이다. 따라서 (가)에서 '가부장적 가족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절대적인 정의에 근거한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비관적 역사는 과거를 부정하여 새로운 관습과 본능을 창안한다. 따라서 (가)에서 제시한 '새로운 가족 제도'는 '가부장적 가족 제도'라는 과거를 부정하고 새롭게 창안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기념비적 역사는 인간 현존의 모습을 보다 차원 높게 만든다. 따라서 (나)에서 '이순신의 위대함을 기리고 보존함'으로써 인간 현존의 모습을 보다 차원 높게 만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골동품적 역사는 실증적 사실의 확인은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다)에서 '단군'을 시조로 만들 때 단군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골동품적 역사는 민족의 역사적 고유성 속에서 민족 구성원 모두를 결합시키는 귀속성의 감정을 만든다. 따라서 (다)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단군의 자손'임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한 민족으로서의 귀속성을 느끼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19. [출제의도] 문맥에 맞는 단어 바꿔 쓰기**

㉞은 '다그쳐 빨리 나아가게 하다'라는 뜻을 지녔으므로, '나타내는'으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㉞은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하다'라는 뜻이므로 '이바지해야'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다. ③ ㉞은 '이어 받아 계승하다'는 뜻이므로 '이어 가는'으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다. ④ ㉞은 '굽히거나 지지 않으려고 맞서 버티거나 항거하다'라는 뜻이므로 '맞서'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다. ⑤ ㉞은 '쓸모가 있다'는 뜻이므로 '쓸모 있는'으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다.

**[과 학]**

[20~22] <출전> 윤용달 역, 「에카트 동물 생리학」

**20. [출제의도] 핵심 내용 파악하기**

이 글은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의 호흡 방법과 출생하면서 변하게 되는 호흡 방법, 그리고 이에 따른 혈액 순환 과정과 심장의 변화를 설명한 글이다. 따라서 중심 화제로서의 표제는 '신생아의 놀라운 적응력'이 적절하며, 표제에 대한 설명인 부제는 '호흡과 심장 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가 적절하다.

① 폐의 구조는 언급되지 않았다. ② 심장이 끝없이 진화한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③ 태아형 절혈구의 기능이 중심 내용이 아니다. ⑤ 혈액의 생성 원리는 언급되지 않았다.

**21.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 구분하기**

㉠은 산소 농도가 낮은 태반에서 효과적으로 산소를 얻어 태아가 호흡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태아형 적혈구'이고, ㉡은 태아가 출생하면서 폐포에 있는 물이 빠질 때 친수 부분끼리 전기적 반발력을 형성하여 폐포가 찢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폐 서큘런트'이다. 태아가 출생할 때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밀려나는 것은 폐포에 남아 있던 폐수이므로 ㉡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22. [출제의도] 태아의 혈액 순환 과정 이해하기**

태아가 출생하여 폐호흡을 하게 되면 난원공은 바로 닫히게 되고 동맥관은 서서히 수축하다가 막히게 된다. 난원공이 동맥관보다 더 빨리 변화를 일으키므로 ㉡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태아는 태반에서 산소를 공급받고, 어른은 폐에서 산소를 공급받는다. ② 난원공과 동맥관은 태반호흡에만 필요하므로 폐호흡을 시작하게 되면 막히게 되어 그 기능을 상실한다. ③ 동맥관은 우심실의 혈액을 태반으로 빨리 보내는 역할을 한다. ④ 우심방으로 들어온 혈액은 난원공을 거쳐 좌심방으로 이동한다.

**[사 회]**

[23~25] <출전> 김홍식, 「알기 쉬운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소비자보호법 해설」

**23.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 파악하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1문단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소비자 피해 보상에 초점을 둔다고 볼 수 없다.

① 4문단에서 청약 및 철회에 관한 기록이 보존되며 이를 열람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② 마지막 문단에 판매자의 최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③ 2문단에서 신원 정보에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판매자가 이를 확인하면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3문단에서 언급한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는 에스스로 가입 의무에서 제외된다.

**24. [출제의도]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기**

에스크로를 이용하면 제3자가 물품대금을 맡아두었다가 소비자가 물품을 받은 후 구매 승인을 한 다음 판매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므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이지만 소비자가 물품을 직접 확인한 후

구매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에스크로는 판매자의 신원 정보 확인과 관계가 없다. ② 에스크로는 제3자가 중개 역할을 하므로 만약 소비자가 판매 대금을 환불받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판매자가 아닌 에스스로 사업자이다. ③ 에스크로를 사용한다고 해서 판매자가 소비자의 구매 승인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에스크로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물품 대금이 바로 판매자에게 전달되었지만 에스크로를 이용하면 물품 대금을 예치했다가 소비자의 구매 승인 후 지급하므로 판매자가 물품 대금을 받기까지의 시간이 지연된다.

25. [출제의도] 반응의 적절성 판단하기

제품의 포장을 뜯은 것은 제품을 훼손한 것이 아니므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① 김 씨는 제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했으므로 청약철회 시점에는 문제가 없다. ② 소비자의 단순 번심이므로 김 씨는 제품의 반송료를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④ 학습 만화책은 복제가 가능한 서적으로, 이 씨가 책의 포장을 뜯었으므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 ⑤ 이 씨가 주문 내용을 꼼꼼히 확인했다면 주문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반품을 요청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기 술]

[26~28] <출전> 안양근, 「TOF 기반 3차원 센싱 모듈을 이용한 3차원 영상 생성 및 상호작용 방법에 관한 연구」

26.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수동적 깊이 센서 방식에서 두 카메라는 동일한 수평선상에 정렬되어 있어야 하고, 카메라의 광축도 평행을 이루어야 한다. ① 5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27. [출제의도] 글의 내용 적용하기

카메라와 물체 사이의 거리가 0이면 반사광이 돌아오는 시간이 없으므로 t2는 0이다. 그런데 t3는 A 센서의 활성화 시간이고 이는 조명의 활성화 시간인 t1과 동일하다. 따라서 t2와 t3가 같아진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t2는 반사광이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므로 카메라와 물체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길어진다. ② t1과 t2가 같다면 반사광은 t1과 t3의 종료 시점부터 센서에 담기게 되는데, 이때 활성화되는 센서는 B 센서이다. 따라서 t4 동안 B 센서에만 담긴다. ③ B 센서는 조명과 A 센서가 꺼지는 시점에 꺼진다. 따라서 t1의 종료 지점에서 B 센서가 활성화된다. ④ t2는 반사광이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 즉 반사광이 센서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따라서 이때는 모든 센서가 반사광을 감지할 수 없다.

28. [출제의도] 이해한 내용의 적절성 판단하기

손과 몸의 상호작용 움직임은 2차원적인 것이고 앞뒤 움직임은 3차원적인 것이다. TOF 카메라는 깊이 정보를 측정하는 기계이므로 3차원 공간 좌표에서 이루어지는 손과 몸의 앞뒤 움직임도 인지할 수 있다. ① TOF 카메라는 밝기 또는 색상으로 표현된 동영상 형태로 깊이 정보를 출력한다. ② TOF 카메라는

적외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태양광이 있는 곳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 ③ TOF 카메라는 대상으로부터 반사된 빛을 통해 깊이 정보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빛 흡수율이 높은 대상은 깊이 정보를 획득하기 어렵다. ⑤ TOF 카메라는 보통 10m 이내로 촬영 범위가 제한된다.

[예 술]

[29~30] <출전> E.H. 고프브리치, 「서양 미술사」

29. [출제의도] 내용 파악하기

4문단에 뒤러의 판화 작품에서 드러나는 이탈리아와 북유럽 미술의 특징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뒤러가 두 르네상스 미술의 특징을 수용한 것에 대해 언급했을 뿐 이들의 대조적 특성을 언급한 것은 아니다. ① 3문단에 언급되어 있다. ② 5문단에 언급되어 있다. ③ 2문단에 소개되어 있다. ④ 1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30. [출제의도] 내용 이해 및 그림 감상하기

두 인물이 중심에 가득 차게 구성된 이 그림은 여인과 아이의 모습과 멀리 뒤로 보이는 건물의 작은 창문까지 자세히 보이도록 매우 세밀하게 묘사하여 사실성을 강조하였다. ①, ③, ④는 모두 가늘고 세밀한 선을 이용해 대상을 정밀하게 표현하는 '해칭 기법'의 특징이 잘 드러난 부분으로, 대상의 굴곡과 명암을 가늘고 세밀한 선으로 정교하게 잘 드러내어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⑤ 정교한 비례 계산을 바탕으로 한 '선 원근법'은 뒤러 작품의 대표적 특징이다. 이 작품에서도 가까운 여인과 아이를 크게 묘사하고, 그 뒤로 길게 이어지는 건물들이 멀어질수록 일정한 비율로 작아지는 모습을 통해 원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고전소설]

[31~34] <출전> 작자 미상, 「수궁가」

31.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 이해하기

[A]는 4음보가 규칙적으로 드러나 율문체의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펼컬', '도리도리' 등의 음성상징어가 사용되어 대상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풍자적 표현을 통해 대상을 희화화하거나 호감이 빠른 문장을 구사하여 상황의 긴박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32.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추론하기

㉠의 '방계'는 자신의 엄지발로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의 '별주부'는 손발이 넷이고 물위에 높이 떠 망بogi를 잘한다고 말한다. 이것으로 보아 ㉠, ㉡은 모두 신체의 일부를 언급하며 임무 수행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① ㉠에서 별주부가 성공 가능성이 높음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② ㉡에서 별주부는 자신의 연륜을 내세우고 있지 않다. ③ ㉠에서 방계는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인다. ④ ㉡에서 별주부만 상대에게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33. [출제의도] 의제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별주부가 자진해서 세상에 나가 토끼를 잡아 오겠다고 말하고 용왕은 별주부의 의사를 수용한다. 이 부분에서 지배층의 무능력한 면모를 파악할 수 없다. ② 용왕과 신하들이 회의하는 곳에 방계가 들어와서 토끼를 잡아 바치겠다고 말하자 '그럼 너도 이놈, 그러면 신하란 말이냐?', '어라, 저놈 보기 싫다! 두 엄

지발만 똑 떼어 내놔야!'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지배층의 횡포를 엿볼 수 있다. ③ 토끼를 잡기 위해 세상에 나가겠다는 별주부에게 주부 마누라가 '당상의 백발 모친 어찌 잊고 가라시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효라는 당대 윤리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별주부가 아내에게 남생이를 조심하라고 단단히 단속한 뒤 집을 나서는 것으로 보아 여성에게 정절을 요구하는 당대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⑤ 별주부가 세상에 간다는 말을 듣고 별주부 모친이 처음에는 만류하지만 용왕을 위해 약을 구하러 간다고 말하자 기특하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충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34. [출제의도] 상황에 맞는 사자성이 추리하기

별주부 모가 별주부가 세상에 나간다는 말을 듣고 울며불며 못 가게 만류하며 자신의 앞날을 걱정하는 것으로 보아, 뜻밖에도 일어난 큰 변고나 갑자기 큰 사건이 생긴 상황을 의미하는 '청천벽력(靑天霹靂)'이 적절하다. ① '감언이설(甘言利說)'은 남의 비위에 맞게 꾸민 달콤한 말과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꾀는 말이라는 뜻이다. ② '자화자찬(自誦自讚)'은 자기가 한 일을 스스로 자랑한다는 뜻이다. ③ '적반하장(賊反荷杖)'은 잘못된 사람이 도리어 잘한 사람을 나무라는 경우에 쓰는 말이다. ④ '조삼모사(朝三暮四)'는 간사한 꾀로 남을 속여 회포함을 이르는 말이다.

[고전시가]

[35~36] <출전> 정철, 「관동별곡(關東別曲)」

35.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이해하기

대상을 점층적으로 강조한 부분은 드러나지 않고, 이를 통한 시적 긴장감을 찾을 수 없다. ①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꼬리', '들을 적에는 우레더니 불 때는 눈이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섞여 돌며 뿜는 소리 십 리에 잣았으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꼬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아아'라는 감탄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6. [출제의도] 작품 감상의 적절성 파악하기

영웅이 무사하다는 진술로 보아 관찰사로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석경'이 그것을 상징하는 것도 아니다. ① 화자가 '죽림'에 있던 자신에게 '방면'을 맡긴 임금의 은혜가 '망극하다'고 표현하고 있으며, 죽림을 떠나 한양으로 이동하고 있으므로, '방면'이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하는 계기가 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의로운 신하인 화자 자신이 한양을 떠나 백발이 많아진다고 했으므로, '백발'은 한양에서 멀어지는 상황에 따른 화자의 심리적 상태를 비유한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오작'만 지저귀는 '대궐 터'는 옛날에 번성했던 모습과 대비를 보이고 있는데, 화자는 이를 보며 '친고의 흥망을 아는가 모르는가'와 같은 생각을 하며 무상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 진술은 적절하다. ④ 화자는 '회양'이 급장유가 선정을 베풀었던 곳의 지명과 같음을 떠올리면서 급장유의 풍채를 닮고 싶다고 말하며 선정의 포부를 품고 있으므로, 이 진술은 적절하다.

[현대소설]

[37~39] <출전> 이청준, 「눈길」

37.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이 글은 과거 회상을 통해 '웃게'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고 있으므로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8.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와 소재의 의미 파악하기**

[A]에는 '나'를 사랑하는 노인이 '나'가 옛날 같은 분위기 속에서 하룻밤만이라도 마음 편히 쉬고 가게 해 주고 싶어 하는 심리가 내재되어 있다. '저녁', '결레질', '이불 한 채'는 노인이 '옛집'의 분위기를 되살려 '나'의 괴로운 잠자리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서 준비한 것들이므로 이러한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9. [출제의도] 의적 증거를 참고하여 작품 감상하기**

'아내'와 '나'는 소통의 부재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웃게'는 모성애를 상징하는 것으로, '나'와 '노인'과 연관된 소재이므로 '웃게'의 의미를 통해 '아내'와의 소통 부재를 해소할 수는 없다.  
 ① '나'는 '웃게'에 관련된 이야기를 엮고, '웃게'를 '빛 문서'처럼 여기면서 긴장하면서 조마조마해 하고 있다. ② '아내'는 이미 '나'로부터 '웃게'에 대한 내력에 대해 충분히 들은 상태에서, '노인'과 '웃게'에 대한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④ '아내'는 '옛집의 기억'을 먼저 상기시킨 후 '웃게'에 대한 화제를 이끌어 내고 있다. ⑤ '나'는 '아내'가 '웃게'에 대한 내력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웃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또한 '아내'는 '나'가 엮고 있는 것을 알면서 '웃게'의 이야기를 꺼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나'는 '아내'가 '나'와 '노인'의 우회적 소통을 의도했다고 추측하는 것은 적절하다.

**[현대시]**

[40~42] <출전> (가) 김수영, 「풀」  
(나) 정호승, 「맹인 부부 가수」

**40. [출제의도] 작품의 공통점 파악하기**

(가)는 '풀이 늙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바람보다 늦게-' 등 유사한 어구를 반복하여 풀이 늙고 일어나는 시적 상황을 부각한다. (나)는 '길을 잃었네', '노엘 부르네', '눈사람이 되었네' 등 유사한 어구를 반복하여 맹인 부부 가수가 추운 겨울날에 노래를 부르는 시적 상황을 부각한다.  
 ① (나)는 '눈', '함박눈', '겨울' 등의 시어를 통해 계절감을 드러내어 암울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가)는 계절감을 드러내어 시의 주제를 강화하고 있지 않다. ③ (가)와 (나)에 정각적 심상을 통해 대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나 의성어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④ (가), (나)는 모두 반어적 표현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⑤ (나)는 '눈 내리', '함박눈은 내리는데' 등에서 하강 이미지가 드러나나 상승 이미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가)도 상승과 하강 이미지를 교차하고 있지 않다.

**41. [출제의도] 의적 증거를 바탕으로 작품 이해하기**

<보기>에서는 다양한 부사어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에 대처하는 풀의 움직임을 형상화하고 있다. 3연에서 '늦게', '먼저'는 풀이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웃는다'는 것을 드러내어 풀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나 풀의 내적 성숙을 지연시키고 있음을 부각하고 있지 않다.  
 ① '드디어'는 '울었다'를 수식하여 바람에 나부껴 누

운 풀이 울지 않고 있다가 결국에는 울게 되었음을 나타내어 억압적인 상황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했음을 나타낸다. ② '더'는 '울다가'를 '다시'는 '누웠다'를 수식하여 날이 흐려 더 울고 다시 누웠다는 상황을 드러내어 풀에 가해진 시련이 만만치 않음을 나타낸다. ③ '빨리'는 '늙는다', '울고'를 수식하여 풀이 바람 때문이 아닌 자기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④ '발목까지', '발밑까지'는 풀이 그만큼 많이 누웠다는 것을 나타내어 풀에 대한 억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42. [출제의도] 의적 증거를 참고하여 작품 감상하기**

눈사람은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민중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봄이 와도 녹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이와 같은 희망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눈사람'은 민중이 바라는 희망을 함축하는 시어인데 이러한 눈사람이 없는 겨울밤이라고 하여, 이는 앞날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부정적인 현실 상황을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시인은 암울한 현실 속에서 사랑과 화해로 이루어질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민중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는 '사랑하기 위하여', '용서하기 위하여'라는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눈'은 민중에게 가해진 시련과 고통을 상징하고, '어둠'은 부정적인 현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눈을 맞으며 어둠 속을 떨며 간다는 것은, 민중들이 고통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④ '아름다움'과 '즐거움'은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의 미래를 지향하는 것으로, 이 표현에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모습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시나리오]**

[43~45] <출전> 주경중 각색, 「동승」

**43.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 추리하기**

주지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 즉 세상을 연못에 비유하며 '개흙투성이' 같은 공간에 '이무기'가 사는, 죄악과 세상의 속된 것들이 들끓는 곳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넬은 동네 사람들의 말을 근거로 연못 속에는 '이무기'가 아닌 '연근'이 있는 곳이라고 말하며, 주지의 말에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도넬이 세상이 악하고 더러운 곳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어머니 찾거나 했으면 좋겠지만 찾지도 못하면 어떡할러구?'라고 한 초부의 대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한 달에 한 번씩 보름날 달 밝은 밤엔 꼭 스님을 보러 오지요.'라고 말한 미망인의 대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도넬이 파계한 어머니의 피를 이어 받았으니, 남들보다 더 많이 염주를 헤아리며 절에 남아 기도를 하며 죄를 씻어야 한다고 주지는 생각하지만, 도넬은 이러한 자신의 운명을 거부하며 절을 떠나고 있으므로 자신의 숙명을 거부하고 있다. ⑤ 주지는 도넬이 부모의 죄를 씻기 위해 절에 남아야 하며, 이것이 도넬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미망인 역시 도넬이 절에 남아 스님의 말을 잘 듣고 있어야 하고 자신이 도넬을 데리고 갔다가 화를 만듦이 부심기 때문에 도넬이 절에 남는 것이 도넬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44. [출제의도] 시나리오 용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132에서 주지는 절을 떠나 살고 싶다는 도넬에게 크게 화를 내고 경내로 들어간다. 이후에 쓸쓸하게 혼자 남겨진 도넬의 모습을 '부감' 기법으로 촬영하면 도넬의 외로움과 쓸쓸함을 잘 표현할 수 있다.

**45. [출제의도] 갈래의 특성 비교하여 감상하기**

[A]의 '눈은 점점 펑펑 쏟아지기 시작한다.'와 <보기>의 '어느덧 하늘도 캄캄으로 변하여 사방이 어두워졌다. 툭툭히 흩뿌리던 눈발도 빠른 속도로 드세어졌다. 바람도 거세어져 우는 소리를 내었다.'를 비교해 볼 때, <보기>가 눈 내리는 날의 배경을 더욱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므로 <보기>와 달리 [A]는 배경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한 진술이다.  
 ② <보기>는 과거의 장면을 과거 시제로 서술하고 있으나, [A]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장면을 현재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③ <보기>는 공간의 이동이 이야기 속에 제시되어 있는 반면, [A]는 '#133 산문밖', '#134 신작로'에서 볼 수 있듯이 공간 변화를 장면 단위로 제시하고 있다. ④ [A]는 서술자가 없지만, <보기>는 서술자가 도넬의 사건을 제시하고 있다. ⑤ [A]는 도넬의 마지막 대사와 '멀리 동리를 내다보며 길게 한숨을 쉰다.', '산문을 돌아다보며 돌아다보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물의 행동과 대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반면 <보기>는 '외로워졌다', '까맣 모를 편안함을 느끼며'에서와 같이 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